

6 뉴스

QS 세계대학 270위 10개 학문분야 상승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2023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우리학교가 지난해보다 6위 하락한 270위를 차지했다(총점 37.2점). 국내 대학 중엔 9위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국내 순위는 동일하다.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에서는 지난해 대비 10개의 학문분야가 상승하고, 11개의 학문분야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권에 위치했으며, 6개의 학문분야가 하락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는 매년 세계대학순위와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 등 9개 항목의 순위를 발표한다. QS 세계대학순위는 ▲학문적 평판도(40%) ▲고용주 평판도(10%) ▲논문 피인용수(20%)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20%) ▲외국인 교원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되며 학문분야별 순위는 ▲학문적 평판도 ▲고용주 평판도 ▲논문 피인용수 ▲H인덱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유동적으로 반영한다.

올해 QS세계대학순위에서 변동된 점은 2024년에 개정될 평가항목에 앞서 ▲국제연구네트워크와 ▲고용결과 지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데 있다. 단, 해당 지표를 이번 순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 학교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총점 37.2점으로 ▲고용주 평판이 지난해 대비 4점 상승했으며, ▲외국인 교원 비율이 11점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국제연구네트워크는 63.1점, ▲고용 결과는 10.2점의 수치를 기록했다.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에서는 총 27개의 학문분야에서 순위권에 올랐다. ▲호텔관광 ▲간호학 ▲국제개발 ▲현대언어는 세계 100위권 이상의 순위를 기록했다. 호텔관광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간호학은 전년대비 100위 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제개발은 전년의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현대언어가 2021년 151-200위에서 2023년 93위로의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10개의 학문분야(▲간호학 ▲현대언어 ▲스포츠관련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물리·천문학 ▲회계·재무학 ▲환경과학)의 순위가 상승했다. 11개의 학문분야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권에 위치했으며, 6개의 학문분야(▲호텔관광 ▲건축학 ▲약학 ▲화학공학 ▲재료과학 ▲화학)의 순위는 하락했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학술팀)은 “대학평가에서 평판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평가에서 하락한 분야는 연구역량 점수에 비해 평판도 점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술팀은 “우리 대학은 노출도 향상을 통한 평판도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 규모 향상을 통해 우수 규모 독립적 연구지표를 비롯한 연구성과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 중 계열별 순위변동성을 살펴보면, 공학 및 기술 분야가 2020년 193위에서 2023년 371위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학술팀은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QS 세계대학순위 세부지표	
지표	점수
학문적 평판도	24.9(-1.5)
고용주 평판도	39(+4)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	85.7(+0.2)
논문 피인용수	13.3(-1.9)
외국인 교원 비율	15.3(+11)
외국인 학생 비율	52.4(+0.5)
국제연구네트워크	63.1
고용결과	10.2
총점	37.2

올해부터 세부항목에서 ▲국제연구네트워크와 ▲고용결과 지표가 반영된다.

공학계열 대학평가에 참여하는 소규모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늘고 있어 종합대학에 비해 규모 독립적 연구지표와 평판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노출 제고에 힘쓰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열(공과대학) 학장은 “우리 학교 뿐 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공학 및 기술 분야의 세계 순위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학 재정 악화로 인한 인프라

투자 규모 열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장은 앞으로의 공과대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교육·연구 재정 투입확대, 박사과정 중심의 대학원 활성화, 교수 연구 성과 극대화 등을 통해 연구 성과 관련 평가 지표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졸업생들의 업무역량 배가를 위해 공학 분야 전공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총동문회 고궁 걷기 대회

김문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제1회 고궁 걷기 대회가 지난 20일 창덕궁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진행된 고궁 걷기 대회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만남 주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81명이 참가했으며 베스트 드레서 시상과 바비큐 파티로 대회가 구성됐다.

베스트 드레서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창덕궁 내를 돌아다니며 화창한 햇빛 아래 사진을 찍었다. 이후 각 참가자는 총동문회 측으로 사진을 보내고, 동문회는 남여별로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 1등 70만원, 2등 60만원, 3등 50만원을 시상했다. 저녁에는 동문회관 옥상에서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박영덕(체육학 82) 총동문회 회장은 “이번 대회는 서류 평가나 학업 성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하고 싶었다”며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회장은 “동문회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후배들의 사회 진출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대회에 참가한 오서영(한국어학 2021) 씨는 “동문회 주관 행사는 처음인데, 선배와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어 좋았다”며 “저녁 식사에서도 선배와 후배 간의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잡 페스티벌,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서울】‘Job Festival(잡페스티벌)’이 지난 13일 서울캠퍼스(서울캠) 경영대학 오비스홀에서 대면으로 열렸다. 대면 개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잡페스티벌은 현직자 동문들이 우리학교를 직접 방문해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학기별로 5

월과 10월에 각각 개최된다. 행사는 20분간 진행되는 1:1 멘토링 방식으로 ▲산업군/기업체/직무 관련 이해 및 트렌드 공유 ▲학생 질문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기반 컨설팅 ▲자유 형태 멘토링 등이 다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자 동문 60명이 멘토로 참여했다. 멘티는 사전 신청자 기준 서울캠 약 300명, 국제캠(국제

캠) 약 200명이 참여했다. 그중 졸업생은 100명 정도였다. 이외에도 현장 신청을 통해 멘토링 참여가 가능했다.

더불어 행사 참여를 위해 국제캠에서 서울캠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도 운행됐다. 셔틀버스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사 시작인 오후 1시와 종료 시각인 오후 5시에 맞춰 두 번 운행됐다. 서울캠 미래인재센터는 “기존에

1:1 멘토링과 함께 동문 직무특강도 진행했으나,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행사인 만큼 장소 예약이 힘들어 이번에는 1:1 멘토링만 진행했다”며 “동문 직무특강은 방중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시로 후배들을 위해 멘토링, 상담을 해주실 멘토 등록 요청을 드리고 있어 현재 2,100분 이상의 멘토 리스트가 있다”며 “리스트에 계신 분들과 ‘경희멘토단’ 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참가 신청을 받아 잡페스티벌 참가 멘토를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멘티로 참여한 엄현지(유전생명공학 2019) 씨는 “멘토링을 통해 포트폴리오 작성 팁과 기업 채용 과정을 알 수 있었다”며 “멘토분께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즉석에서 지인과 연락해 관련 정보를 찾아줄 정도로 열심히 도와주셨다”고 만족감을 표했다.